

공동체 소식



## 연중 제 23주일

하느님, 저희가 이 세상의 것을 분별할 줄 알고, 천상의 것을 알아보도록  
이끄시니, 저희에게 성령의 지혜를 주시어, 그리스도의 충실한 제자로서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짊어지고, 그리스도의 뒤를 따르게 하소서.



9월 기도지향

- 류기범(요셉), 신혜경(마리아) 가정
- 김태중(예레미야), 김시연(엘리사벳) 가정

순교자 성월

한국교회는 해마다 구월을 ‘순교자 성월’로 지내면서,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이 순교자들을 기억하며 그들의 삶을 본받도록 이끌고 있습니다. 순교란 신앙을 지키고자 목숨을 바치는 행위입니다. 순교자들은 하느님과 하늘나라에 대한 철저한 믿음을 버리지 않으려고 목숨까지 내놓은 것입니다. 우리도 순교자들의 굳센 믿음을 묵상하며 선조들의 신앙을 본받고자 노력합시다.

주간 전례

- 9/13(금) : 성 요한 크리소스토모 주교 학자 기념일
- 9/14(토) : 성 십자가 현양 축일

추석합동위령미사

9월 15일(주일)은 우리 민족의 명절인 한가위입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하느님의 풍성한 은총에 감사드리고, 세상을 떠나신 조상들의 영혼을 기억하며 합동위령미사를 정성껏 봉헌합니다.

맨하턴 공동체 미사

- 일시 : 9/14(토) 오전 11시
- 장소 : 성 토마스 모어 성당

로렌스 공동체 미사

- 일시 : 9/21(토) 오후 5시
- 장소 : KU 채플

☞ 본당 사정상 한 주간 앞당겼습니다.

한인회 주최 추석잔치

- 일시 : 9/14(토) 오전 11시
- 장소 : Corporate Wood Founder's Park

기타

- 11/24(일) 중심미사 때, 노이만 대주교님(캔사스 대교구)의 공식적 사목방문과 미사 봉헌이 있습니다. 저희 공동체가 마음을 모아 대주교님을 맞이해야겠습니다.  
- 초등부 주일학교가 개학하여 첫 수업을 갖습니다. 학부모님들의 관심과 격려가 필요합니다. 매 주일, 회관서 교리교육이 있습니다.

전례 성가

시 작	예 목	성 체	마 침
26	512	180/154	285

주일미사 복사

	항 복사	시종 복사
금주	이우영(가브리엘)	고영방(스테파노)
	이원준(요 한)	고평원(프란치스코)
차주	안광희(크리스토퍼)	문석찬(요 션)
	안광민(야 고 보)	문호진(안토니오)

전례 봉사자 및 독서자

	해설자	제1독서
		제2독서
금주	김수연(올리안나)	정준구(파비아노)
		박혜정(가타리나)
차주	최은미(아 네 스)	정수한(베 드 로)
		김주연(세실리아)

애찬 봉사자

금주	박혜정, 박계숙, 지은경, 김재은, 윤유나
차주	다함께

헌금 봉사자

금주	김시연(엘리사벳), 백문주(엘리사벳)
차주	문석찬(요셉), 최은미(아네스)

우리들의 정성

하느님께 드리는 헌금과 교무금에 정성을 다해투셔서 감사합니다!!!

	참례인원	헌금	교무금
<b>08/25</b>	83명	405불	650불
<b>09/01</b>	87명	406불	1,240불

미사시간  
주 일: 11:00 AM  
화요일: 7:00 PM  
목요일: 10:00 AM

고해성사  
매 미사 30분전

예비자교리  
주일 10:00 AM

# 캔사스 한인 천주교회

**Korean Catholic Community of Kansas**  
9130 Pflumm Rd. Lenexa, KS 66215  
(913) 563-7896 www.kckcatholic.org  
주보 편집 : 박동희 안나 660.853.9984 flyanna@gmail.com

주임신부 주영길 토마스  
C: 913.633.1273  
jooyk88@gmail.com

회 장 안동현 프란치스코  
C: 913.219.8066  
Tonghyun.An@gmail.com

부 회 장 정수한 베드로  
C: 913.707.8142  
scnn8@hotmail.com

재 무 차호섭 요셉  
C: 614.598.7908  
hscha72@gmail.com

## 오늘의 전례



오늘은 연중 제23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을 따르려면 자신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따라야 한다고 가르치십니다. 9월 순교자 성월을 지내면서, 이 땅의 신앙 선조들이 보여 주었던 십자가의 삶을 떠올리며 더욱더 충실한 신앙생활로 나아가기를 다짐합니다.

### 성화해설

**성 베드로의 십자가형**  
(루카 조르다노, 1660년, 아카데미아 미술관 소장)

“누구든지 제 십자가를 짊어지고 내 뒤를 따라오지 않는 사람은 내 제자가 될 수 없다.”(루카 14,27) 사도 베드로는 그리스도의 기쁜 소식(복음)을 전하다 그리스도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을 맞이하였습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닮고 싶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처럼 십자가에 똑바로 달릴 수는 없습니다.” 라는 베드로의 뜻에 따라 그의 십자가는 거꾸로 된 십자형틀이었습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로서의 삶에 십자가를 기쁘게 질 수 있는 은총을 청합니다.

지영현 시몬 신부 | 한국가톨릭미술가협회

**제 1 독서 :** 지혜 9.13-18 < 누가 주님께서 바라시는 것을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



주 님 당 신 은 대 대 - 로 저 회 의 피 난 처 가 되 시 었 나 이 다

- 사람을 먼지로 돌아가게 하시며 당신께서는 말씀하시나이다. 인간의 종락아 돌아가거라. 천년도 당신 눈에는 지나간 어제 같고 한토막 밤과도 비슷하나이다. ◎
- 당신께서 앓아가면 그들은 한바탕꿈 아침에 돌아나는 풀과 같이 아침에 피었다가 푸르렀다가 저녁에 시들어서 말라버리나이다. ◎
- 날수 쉼 줄 알기를 가르쳐 주시어 저희들 마음이 슬기를 얻게 하소서. 주님 돌아오소서 언제까지 오리라 당신의 종들을 여여뼈 여기서. ◎
- 새벽부터 넘치도록 자비를 베푸시어 저희 한생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주 저희 하느님의 어지심이 저희 위에 내리옵소서. 저희 손이 하는 일에 힘을 주소서. 저희 손이 하는 일에 힘을 주소서. ◎

**제 2 독서 :** 필레 9--10.12-17  
< 이제 그를 종이 아니라 사랑하는 형제로 돌려받으십시오. >

**복음환호송 :** ◎ 알렐루야.  
○ 당신 얼굴 이 종에게 빛나게 하시고, 당신 법령을 저에게 가르쳐 주소서. ◎

**복 음 :** 루카 14.25-33 < 자기 소유를 다 버리지 않는 사람은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



쉐 마

“시리아와 중동과 전 세계의 평화를 위한 단식과 기도의 날”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저는 세상 모든 곳에서, 모든 민족들과 한 인류 가족,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속에서 커져가는 고뇌와 더불어 점점 드높아지는 외침에 저의 목소리를 보태고자 합니다. 이는 평화를 향한 외침, 힘주어 부르짖는 외침입니다. 우리는 평화로운 세상을 바랍니다. 우리는 평화의 사람들이 되고자 합니다. 분열과 분쟁으로 찢기고 갈라진 우리 사회 안에 하루 빨리 평화가 자리하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의 전쟁은 결단코 안 됩니다! 전쟁은 절대 더 이상 안 됩니다! 평화는 귀중한 선물로, 증진하고 수호하여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수많은 분쟁은 세계 큰 고통과 근심을 안겨줍니다. 특히 최근에 시리아에서 벌어진 일로 저는 깊은 마음의 상처를 입었으며 그 엄청난 사태 전개에 비통해 하고 있습니다.

저는 강력히 평화를 호소합니다. 이는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리나라 호소입니다. 특히 무장하지 않은 민간인들을 상대로 한 무기의 사용이 이 순교의 나라에 얼마나 많은 고통과 참사와 슬픔을 안겨 주었고 또 안겨다 주고 있습니까! 저는 미래의 빛을 볼 수 없는 수많은 어린이들을 생각합니다! 저는 아주 단호히 화학 무기의 사용을 규탄합니다. 최근에 벌어진 참상이 제 정신과 마음에 또렷이 남아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우리 행동에 대한 하느님과 역사의 심판은 피할 길이 없습니다! 폭력의 사용은 결코 평화를 가져오지 못합니다. 전쟁은 전쟁을 낳고, 폭력은 폭력을 낳습니다!

저는 이 분쟁의 당사자들이 저마다 그들 양심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자신의 사리사욕에 갇히지 말고 서로를 형제로서 바라보고 결연하고 용기 있게 만남과 협상의 길을 따라 맹목적인 분쟁을 극복할 것을 온 힘을 다해 당부 드립니다. 마찬가지로 저는 국제 공동체가 시리아 국민 전체의 선익을 위하여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시리아의 평화, 곧 대화와 협상에 바탕을 둔 평화를 위한 분명한 대안을 추진하고자 모든 노력을 기울이도록 권고합니다.

이 끔찍한 분쟁으로 상처 입은 이들과 특히 피난민들, 인근 국가로 피한 많은 난민들에게 인도주의적 지원을 보장하는 데에 어떠한 노력도 아끼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이들의 고통을 덜어주고자 애쓰는 인도주의 활동가들이 필요한 도움을 제공할 수 있도록 가능한 여건이 조성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평화를 위하여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께서서는 정의와 사랑이 다스

리고 이끄는 인간 사회의 새로운 관계를 정립하는 일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몫이라고 하셨습니다.

선의의 모든 사람들은 평화 추구의 과업으로 하나로 이어져 있습니다! 저는 가톨릭 교회 전체, 그리고 다른 교파의 모든 그리스도인뿐만 아니라 모든 종교인들과 비신자 형제자매들에게 강력하고도 간곡하게 당부 드립니다. 평화는 모든 장애물을 뛰어넘는 하나의 선입니다. 인류 전체에 속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목소리 높여 거듭 말씀드립니다. 민족들 안에 그리고 민족들 사이에 화합을 이룩하는 것은 대립의 문화나 분쟁의 문화가 아니라, 만남의 문화와 대화의 문화인 것입니다. 이것이 평화로 나아가는 유일한 길입니다.

평화의 호소가 높이 울려 퍼져 모든 사람의 마음에 가닿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사람들이 저마다 무기를 내려놓고 평화를 염원하고 평화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이러한 목적에서 저는 온 교회에, 평화의 모후이신 동정 마리아 탄생 축일 전야인 오는 2013년 9월 7일을 시리아와 중동과 전 세계의 평화를 위한 단식과 기도의 날로 선포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또한 동료 그리스도인들, 타종교인들, 선의의 모든 이를 포함하여 모든 사람이 각자 어느 모로든 이에 참여하도록 초대합니다.

2013년 9월 7일 저녁 7시부터 자정까지 우리는 이곳 성 베드로 광장에서 함께 모여 기도하고 참회의 마음으로 하느님께서 당신의 위대한 선물인 평화를 시리아와 전 세계의 분쟁과 폭력의 상황에 처한 모든 이들에게 베풀어 주시도록 간청할 것입니다. 인류는 이러한 평화의 몸짓을 보고 희망과 평화의 말씀을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모든 개별 교회들도 이 날 단식과 더불어 이러한 지향에 따라 함께 모여 기도할 것을 당부합니다.

우리가 대화와 화해와 사랑의 힘으로 폭력과 분쟁과 전쟁에 대응할 수 있게 도와주시도록 성모 마리아께 간청합니다. 우리 어머니이신 마리아께서 우리가 평화를 찾도록 도와주시기를 빕니다. 우리는 모두 성모님의 자녀입니다! 성모 마리아님, 저희를 도우시어 저희가 어려운 상황을 이겨내고 모든 상황에서 만남과 평화의 참된 문화를 이룩하는 일에 날마다 헌신할 수 있게 하소서. 평화의 모후이신 마리아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 9월 1일 정오 삼종기도에서 교황님의 연설 -

마중물

“거지 사제”

선종하신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의 일화 중 하나이다. 미국의 한 주교가 교황을 알현하기 위해 로마에 왔다. 주교는 로마 시내의 한 건물 앞 계단에서 구걸을 하고 있는 거지에게 시선이 멈춰졌다. 더부룩한 수염에 지저분한 옷을 입었지만 그는 분명 주교가 신학생 때 로마에 유학하면서 함께 공부를 하고 서품을 받은 친구 사제였다. 주교가 거지사제에게 자신의 이름을 밝히며 다가가자 그는 인사를 하는 등 마는 등 황급히 자리를 떴다. 다음날 주교는 교황을 만난 자리에서 그에 대해서 말씀드렸다. 그러자 교황은 주교에게 부탁했다.

“주교님, 죄송하지만 한 번 더 그 곳에 가서 아직 그 사제가 구걸을 하고 있거든 제게로 모시고 와 주십시오.” 주교는 다시 그 계단 앞으로 가서 자꾸만 피하려는 거지사제를 붙잡고 통사정을 해가며 간신히 교황께 데리고 왔다. 거지사제를 만난 교황은 주교에게 잠시 밖에 나가서 기다려달라는 부탁을 했다. 거지사제와 교황만 남게 되자 교황은 즉시 거지사제 앞에 무릎을 꿇으며 “신부님께 고해성사를 청합니다.”라며 머리를 숙였다. 당황한 거지사제는 “저는 사제로

서의 모든 권한을 잃어버린 지 오래입니다. 따라서 고해성사를 드릴 수 없습니다.” 라고 말했다. 교황은 다시 이렇게 말했다.

“제가 로마 주교로서 지금 이 자리에서 신부님께 사제로서의 모든 권한을 드립니다. 제게 고해성사를 주십시오.” 꿇어앉은 교황에게 고해성사를 주는 거지사제의 눈에서 쉬지 않고 눈물이 흘러내렸다. 교황의 고해성사가 끝나자 이번에는 거지사제가 교황 앞에 꿇어 고해성사를 청했다. 거지사제의 고해성사가 끝나자 교황은 거지사제가 구걸하고 있는 거리의 이름을 묻고 거지사제를 그 거리의 고해신부로 임명했다. 그는 거리의 부랑아들과 거지들의 고해신부로서, 누구보다 구걸하는 사람과 떠도는 사람들의 심정을 잘 아는 아버지로서 존경받으며 지금까지 충실한 사제로서 잘 살아가고 있다.



‘신앙의 해’ 교육자료

제 5절 “저승에 가시어 사흘날에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54. 예수님께서 저승에 가셨다는 표현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저승에 가셨다는 표현은 예수님께서 죽음을 겪으셨고 죽은 이들의 거처에 머물러 계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되살아나셨습니다.”(1코린 15,20)고 하는 신약 성경에 자주 나오는 이 표현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기 전에 죽은 이들의 거처에 머물러 계셨다는 사실을 전제 조건으로 합니다. 이것은 사도적 설교가 예수님께서 저승에 가신 사실에 부여한 첫째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모든 인간과 마찬가지로 죽음을 겪으셨고, 그 영혼은 죽은 이들의 거처에서 그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그곳에 묶여 있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선포하는 구원자로서 그곳에 내려가신 것입니다(가톨릭교회교리서, 632항).

돌아가신 그리스도께서 내려가신 죽은 이들의 거처를 성경은 저승이나 셔울(지옥)이라고 하는데, 이곳에 있는 이들이 하느님을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실 악인이건 의인이건 구세주를 기다리는 모든 죽은 이의 경우가 그렇듯이,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긴 불쌍한 라자로의 비유에서 보여주시듯이 그들의 운명이 모두 같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승에 가 구해 내신 것은 아브라함의 품에서 자신들의 해방자를 기다리던 거룩한 영혼들이었다.” 예수님께서서는 지옥에 떨어진 이들을 구하거나 저주받은 지옥을 파괴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보다 먼저 간 의인들을 해방시키고자 저승에 가신 것입니다(가톨릭교회교리서, 633항).